“간화선은 대중과 함께 할 때 큰 의미”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간화선대법회서 강조

10월 15일 대구 동화사서 개최
첫 법사로 나서…1500대중 운집
인성교육 5계 새롭게 공개해
7명 선사들 차례로 대중 화두 제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사진 왼쪽)은 제2회 간화선대법회서 간화선 대중화를 강조했다. 이날 법회에는 1500여 대중이 운집했다.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야단법석이 대구 동화사에서 10월 15일부터 7일간 펼쳐졌다. 첫날 법사로 나선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간화선 대중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스님은 1500여 대중이 운집한 자리에서 윤리교육 5계를 제시하고 간화선사들의 대중 회향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이날 해외순방에서 본 서구사회의 참선열풍을 소개하며 대중들에게 간화선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많은 해외 순방에서 보니 간화선 참선법이 많은 시민에게 호응을 얻어 특히 지식층이 참선 명상을 하고 있었다. 앞으로 한국 간화선이 발전하리라 본다”며 “수좌 스님들이 선방에서 착실히 공부하여 세세생생 한국불교를 알리는 역할을 해주셔야 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인성교육 5계를 제시했다. 스님이 제시한 5계는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부모와 조상님께 효도합시다 △친구와 이웃을 사귐에 있어 신의를 바탕으로 합시다 △맡은 바 일에 성심과 정성을 다합시다 △뭇 생명을 사랑합시다 등이다.

5계를 제시한 스님은 “일등 지혜의 눈을 갖추고 한편으로는 인간미 넘치는 이런 실천행을 통해 우리 사회, 세상을 밝게 하자”며 “옛 선사들에게서도 자신의 수행보다 대중을 지도함을 더 높게 평가한 것은 이런 연유다. 이런 이가 있으면 산승이 주장자를 두 손으로 전하겠다”고 말했다.

간화선 대법회에서는 선사들의 법문이 이어졌다. 간화선 대법회 둘째 날인 16일 무여 스님(축서사 선원장)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수행과 정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일상 그대로 공부와 생활이 일치해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은 일상을 떠나 존재하지 않는다”며 “생활선이 되게 하는 것이 화두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16일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은 셋째 날 법회에서 “인삼은 6년만에 캐고 산삼은 보는 즉시 캔다면 수행도 듣는 즉시 실천하라”면서 깨달음과 함께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18일에는 함주 스님(법주사 총지선원 선덕)이 10여 년 만에 대중 앞에 나서 “수행정진에는 고행이 따르게 마련이다. 편히 앉아서 깨닫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는 깨치기 어렵다”며 “태산은 흙 한 줌 한 줌이 모여서 됐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적고 하찮아도 옳고 바르면 모이고 모여서 큰 산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동화사 금당선원 유나 지환 스님은 “부처로 살겠다는 치열한 발심으로 간절하고 꾸준히 화두를 구하고 찾으면 삶이 변화할 것”이라고 설했다.

20일에는 현기 스님(지리산 상무주암 수좌)이, 21일 대원 스님(학림사 오등선원 조실)이 차례로 법사로 나서 수행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한국불교의 전통적 수행법인 간화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화선대법회 법회 시작에 앞서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대표 의정 스님은 “직접 법문을 내려주심은 큰 영광”이라며 “간화선대법회는 종단의 발전과 한국불교 발전의 초석을 놓는 불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스님은 또 “우리나라는 지구촌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남북한 극한 대립 상황에 지진과 사회갈등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선사들의 실참법문이 간화선에 대한 이해와 실천 방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 이번 행사에 참석한 정효 박성중 거사는 “한국불교 수행은 간화선이라는 희망이 있다. 선방에 계신 선사들을 보다 쉽게 만나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법회가 보다 많이 생겨 스님들이 불자대중을 보다 활발하게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남겼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생명존중 만방에 펼칠 ‘세계생명헌장’ 논의

생명포럼, 2016 월정사 국제컨퍼런스서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가 주최하고 생명포럼이 주관한 2016 월정사 국제컨퍼런스 ‘생명다양성을 넘어 생명존엄성으로’가 10월 14일 알펜시아리조트서 열렸다. 이날 자리서 생명포럼은 윤용택 제주대 교수와 정민걸 공주대 교수가 작성한 ‘세계생명헌장’ 초안을 발표했다.

세계생명헌장 초안은 “모든 생명체는 모두 한 뿌리서 나와 서로 연결된 하나의 몸으로,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생명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존엄한 존재”라고 전제했다.

또한 “현세대의 집착된 쾌락을 위해 생명체와 생태계를 파괴하며 미래세대가 희생되도록 하는 것은 죄악이다. 쾌락과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엄청난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하며 기후변화, 미세먼지, 물 부족, 숲 파괴, 해양오염 등 위험 수준에 근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명존중 원칙 10가지’가 제시됐다. 10개 원칙은 △지구는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함께 살아갈 유일한 거주처다 △인류의 지식과 지혜는 모든 생명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쓰여야 한다. △모든 인간은 전쟁이 가장 큰 죄악임을 인식하고 평화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등을 포함한 내용이다.

이어 세계생명헌장 초안에 대한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도 진행됐다.

윤용택 교수는 “특정 종교, 특정 집단의 생명헌장이 아닌 세계 헌장이 되기 위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회시스템 변화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현대문화 및 제도 변화의 필요성도 제시해야 한다. 실질적 헌장이 되기 위해 앞으로 많은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생명헌장은 추후 수정 · 보완 작업을 거쳐 2017년 상반기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1000일동안 이어질 화엄의 구법여행

범어사, ‘53선지식 천일화엄대법회’ 개최

의상대사가 화엄 십찰 가운데 하나로 창건한 금정총림 범어사가 천일동안 화엄 법석을 마련한다.

부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53선지식 천일화엄대법회’를 11월 29일 오전 10시 보제루에서 대강백 무비 스님의 법석으로 시작한다.

‘53선지식 천일화엄대법회’는 범어사가 화엄사상으로 창건된 의미를 전하고 부산에 화엄의 뜻을 널리 펼치기 위해 기획됐다. 앞으로 범어사는 매월 초하루마다 선지식을 초대해 화엄경의 선재동자가 펼치는 구법여행을 진행한다.

이번 천일화엄대법회에 앞서 범어사는 11월 1~3일 매일 오전 10시 보제루에서 ‘53선지식 천일 화엄대법회 특강’도 연다.

이 시간은 〈화엄경〉의 전체 개요 내용을 이 시대 대강백의 깊이 있는 설명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다.

특강 기간에는 불국사 덕민 스님(불국사 승가대학장), 범어사 무비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 통도사 지안 스님(조계종 고시위원장)이 강사로 나선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범어사는 화엄 십찰 중 하나로 선찰대본산 금정총림이라는 역할에 맞는 법석이라 생각된다. 불도 부산의 화엄종찰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법석이라 그 의미가 크다”며 “매월 화엄 법석에서 법희선열의 참된 행복을 만나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051)508-3636 하성미 기자

“잘못된 정부 결정, 책임은 가장 약한 자들이…”

사회노동위 등 3대종교, 조선업 하청노동자 고용안정 기원법회

진퇴양난에 빠진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을 위해 불교 · 개신교 · 가톨릭 3대종교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으로 모여들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10월 18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량해고 위기를 맞은 조선소 하청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기도회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엔 사회노동위원장 혜용 스님과 사회노동위원 도철 · 법상 · 고금 스님을 비롯해 이웃종교인, 현장노동가 40여명이 참석했다.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염원하며 열린 이 행사는 천주교 · 개신교 · 불교 순으로 각 종교 기도의식 및 발언이 진행됐다.

혜용 스님은 “모든 권력은 위로부터 생기는데, 반대로 고통과 억압은 아래부터 발생한다”며 “이처럼 불합리한 삶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 되고자 성직자들이 나섰다. 더 많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 하루빨리 하청 노동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을 갖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앞서 정수용 신부는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책임을 가장 약한 자들이 짊어지고 있다. 책임지겠단 고용주 한 명 없으며,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단 얘기조차 없다”며 “우리는 수많은 자들의 지혜를 모아, 약한 자들이 연대하고 정부는 그들을 보호하는 데 충실할 것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자리엔 송태완 거제통영고성 금속노조설립위원장을 비롯한 현장노동가들도 함께했다. 송 위원장은 “‘조선업 위기’란 명목으로 정규직들에겐 희망퇴직 권유 형태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하청노동자들은 소리소문 없이 일자리서 쫓겨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주십사 우리는 거리로 나섰다”고 성토했다.

박아름 기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3대 종교는 10월 18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서 대량해고 위기를 맞은 조선소 하청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기도회를 봉행했다.



한국불교의 대중화·세계화를 위해서는 다방면의 불교 인재들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동국대학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학문과 인격을 수양하는 조계종 유일의 종합대학입니다.
종립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후원해 주실 귀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휴지 한 장도 아껴 쓸 만큼 근검절약하며 모았습니다.
동국대가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해 사회와 나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인 스님(입적) : 평생 청빈한 삶을 살며 모은 전재산 5억원을 암투병 중 동국대에 기부하고 1주일 후 입적

“재산은 나 살만큼만 두고 동국대에 많이 내놓고 하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거 아닙니까.
좋은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도 좋고 부처님도 좋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故 이명기 보살 : 평생 방직공장에서 일하며 마련한 전재산인 전농동 아파트를 2002년 동국대에 기부

•**후원 문의:**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 (02-2260-8992~4)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